

◀기쁜 우리 날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여보세요. 잠깐만요."

아침 산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트럭 운전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운전사인 할아버지가 길을 잃어버리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는 이정표가 제대로 붙어져 있지 않아서 종종 운전사들이 길을 잃고 헤매곤 했으니까요.

"길을 잃으셨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입고 있던 청색 점퍼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마도 이 할아버지는 초행길이어서 약도를 그려 왔나 봅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건네는 뽀뽀한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도가 어린이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드러다보며 안쓰러운 듯 말했습니다.

"내 손주죠.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지요."

나는 "그것 참 안됐군요" 하면서 그럼 병원비가 부족해 돈을 좀 달래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지갑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러오."

"돈보다 더 중요한 거요? 그게 무엇인데요?"

"나는 지금 이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탁하는 중이러오. 이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시겠소?"

나는 기꺼이 할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사진속의 아이가 빨리 완쾌되길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살아오면서 올린 가장 간절한 기도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낳고 그만 두겠어요”

◀그땐 그랬지 ▶ 차범근 가족 가족계획홍보

“하나만 더 낳고 그만 두겠어요”

저출산으로 걱정해야 하는 지금이지만 불과 얼마전 70,80년대에는 독일에서 이름 날리던 차범근 선수 가족이 첫 딸을 낳고 하나만 더 낳겠다는 가족계획 홍보를 할 만큼 인구성장을 염려했습니다. 그 후 차두리 선수가 태어났고 그의 동생이 또 태어나 약속은 못 지켜 졌지만 한 축구 가족의 탄생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한결 같이 따뜻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8권 3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8월 27일
☎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U. 샤퍼



우리가
토닥거리며 싸울 때도
입 맞출 때도
서로의 기대를 이야기할 때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토라질 때도
우리의 결혼을 얘기할 때도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울 때도
웃을 때도

당신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이지 안심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기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관계를

주여,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언제나 그렇게 해주셨듯이...

◀말씀따라 행하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공통점이 있다.

우리 서로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한다.

◀인품따라 행하기▶

낮선 사람도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십년지기가 된다

8월 “찬양과 말씀의 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y	Calvary	다 같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378장	다 같이
기도 Pray		장현중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13:21-30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그 이름 비길데 없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생명의 양식(김재연, 박형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본향을 향하네	
설교 Sermon	12제자 연구(12) “부끄러워진 이름 가뭇 유다”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40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지금은 이 형편입니다. 2개월 전부터 마음에 두고 준비 하던중

**이 돌 반지가 생각나고.....

-성전건축헌금으로 아들의 돌 반지를 드린 어느 교우의 봉투에 담긴 글에서-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4,175 & 금반지 17개.금팔찌 1 총액: \$131,920

◆9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차량	안내
27	장현중	김교섭	본 당: 노은숙
3	정덕수	박일영	윤주아
10	최재학	이광희	현 관: 장현중
17	고성일	장현중	정덕수
24	권용일	정덕수	새교우: 이광희 장유진

◆9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3	성찬주일 월초새벽기도회(1) 남선교회(1) 구역예배(8)
10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2)
17	
24	이삭줍기주일 학생부수련회(29- 1)

『교회 생활』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5시

- 1.교우소식
<축하합니다> 김다윗 어린이(김경구, 강은미 집사 아들).
*오uckland교장협회(Auckland Principal Association) 주관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 수상.
- 2.오늘 예배는 찬양과 말씀의 예배로 드립니다.
- 3.월초새벽기도회 <일시> 9월 1일(금) 새벽 5:55분
*9월의 첫 날, 첫 새벽에 하나님께 내 가족과 삶을 위해 부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4.모임
(1)정기당회: 친교 후
(2)남성만의 르네상스: 남선교회별로 모여 선교회 회의, 믿음의 격려와 친교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 5.수요수도원 <일시> 금주 수요예배 저녁 7:30분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교회와 이웃에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간구하겠습니다.
- 6.“우리 교회 우리 손으로, 우리 교회 우리 자녀에게”
*성전건축을 위해 많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예배 후 식사친교를 갖습니다
*여선교회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착한 시인들▶ 봄

이소리

눈보라가 아무리 까불어싸도
오는 봄한테는 못 이기는 갑지에

하모
오는 봄을 우째 놓칠끼고
피는 꽃을 우째 모른 척 할끼고

내 몰래
니 몰래

축축히 젖어드는 그리움
빠간치 틈새 꿈틀대는 사랑을
우째 몰라라 할끼고

이번 겨울이 참 길다지만 기다림만이야 하겠습니까? 겨울의 끝인가 했다가 냉한 바람앞에 꺾이고 봄인가 했다가 태양 숨긴 비구름에 접어야 했던 봄 마중. 그래도 계절은 기다리면 온다지만 뽕뽕 닫힌 Hall의 문을 보면서 종족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이 가장 보기 흉한 겨울 입을 알겠습니까. 잃어버린 따뜻한 가슴, 잃어버린 예수일거라는 생각입니다.